

국민 생명·안전 우선...건설업계, 중대재해 근절 힘 모은다

광주·전남건설협회, 긴급 대책회의 개최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정부 정책 공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

지역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4일 협회 임원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근로자의 생명 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는 4일 협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광주시회 긴급대책회의 후 기념촬영과 전남도회 회의 모습.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회 제공>

호는 기본이자 출발점이므로 지역건설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도 이날 박경재 회장 주재로 도회 회장단을 비롯한 운영위원, 윤리위원 및 중소건설업육성특별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경재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의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근로자의 인식 전환 및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설업계 스스로

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해 회원사 안전관리교육, 사례집 배포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임재만 기자



광주은행은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와 최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호남지역 다문화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다다캠프'를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다문화 아동과 함께 '다다캠프' 성료

금융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호평

광주은행은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4일간 정읍에 위치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호남지역 다문화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다다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다다캠프'는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체험 캠프'의 줄임말로 2023년부터 시작된 JB금융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호남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진로탐색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더욱 풍성하게 구성됐다. JB금융그룹 임직원으로 구성된 '씨앗 봉사단'과 함께하는 금융교육을 비롯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의 진로특강, 실내

오리엔테어링 활동, 천문학교 교실, 인도 출신 방송인 '럭키'의 다문화 강연, 진로 및 공동체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중도입국 아동과 고려인 아동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배준열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멋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광주은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양진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캠프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지역 다문화 아동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실외작업장 운영질환 예방 기본수칙

- 3.3리터 이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2. 작업장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1.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산인공 전남지사, 공인중개사 국가전문자격 원서접수

8일까지 인터넷·모바일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4일 "이날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2025년도 제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모집 중이다"고 밝혔다.

접수는 큐넷(www.Q-net.or.kr) 사이트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접수도 가능하다. 시험장소는 순천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여

수정보과학고 등 지역민을 위한 순천, 광양, 여수지역을 분산해 시험장 7개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Q-net 회원 로그인 후 진행되며 모바일(앱)접수가 가능한 만큼 사전에 모바일 큐넷 앱(App)을 설치하고 회원가입과 사진등록을 미리해 두면 접수 당일 보다 빠르게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자격시험부(061-720-85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태호 기자

지역제조업, 시장·사업성 부족 신사업 추진 '난항'

광주상의 조사, 56% 신사업 '미추진'

광주전남 제조업이 시장 정체와 경쟁 격화로 인해 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업체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략을 파악하고자 1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 신사업 추진실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제조업의 주력사업 시장 동향과 경쟁환경, 신사업 추진 여부 및 주요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8.6%는 기업 주력사업(제품)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성숙기

(시장 포화 상태)'로 평가했으며, '쇠퇴기(시장 축소)'에 해당한다고 본 기업도 24.8%에 달했다.

시장 내 경쟁상황 역시 '경쟁 격차가 사라져 치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7.9%로 절반을 넘었고 '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 중'이라는 응답도 21.1%에 달해 전반적인 경쟁 심화 양상이 확인됐다.

시장 정체 또는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 착수 여부에 대해 56.4%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43.6%에 그쳤다.

시장의 포화 및 쇠퇴에 대비해 주력사업을 대체할 신사업의 착수 및 검토 여부에 대해 56.4%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43.6%에 그쳤다. /임재만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